

공·사보험
정책협의체

2018.9.21.(금) 14:00
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

모 두 말 씀

2018. 9. 21.

금 융 위 원 회 부 위 원 장
김 용 범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□ 안녕하십니까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.

○ 우선, 추석을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 공·사보험 정책협의체에 참석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○ 특히,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해주신 연구기관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.

□ 그 동안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·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제기된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·시행하였습니다.

○ 우선, 실손의료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의 '근본 원인'인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를 '18년 4월부터 전면 금지하였고,

○ 기존 질병 등으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왔던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보험과, 은퇴자의 보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단체-개인 실손 간 연계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.

□ 그 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인 건, 바로 1년전 공·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약속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,

○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영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, 연계 혜택이 있다면 이를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.

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라 치료목적의 비급여 진료항목이 급여화 된다면,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정화되는 등 큰 폭의 긍정적 변화가 예상됩니다.

- 이러한 인식하에,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온전히 제공한다는 목표로 복지부와 금융위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왔습니다.
- 금번 연구용역은 비급여 항목 전체를 급여체계에 포함시키는 등 보장성 강화정책이 모두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,
 - 급여화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 수준에 따라 실손 보험금의 인하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 - 이러한 전제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, 약 13~25% 수준의 실손 보험금이 감소될 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.
- 하지만, 현재까지 전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세부시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고 일부 비급여 항목만 급여화가 시행되었기에,
 - 전체 비급여 항목을 급여체계에 포함시킬 때의 인하요인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.
 - 따라서 이미 확정된 항목의 인하효과부터 반영하는 방안 등 현실적인 인하요인 반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늘 협의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- 과거에 판매된 실손 상품 가입자가 손해를 악화 등에 의해 금번 인하요인을 반영하더라도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,
 - 최대한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·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앞으로도, 나머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시행·확정된다면, 이에 대하여 이번 방안과 동일하게 보험금 감소효과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일부 보험회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,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신설(풍선효과)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 - 그러나,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 동안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비급여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, 이에 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.
- 앞으로도, 건강보험 체계 개편에 상응하도록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의 개편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등 공·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 - 그런 점에서 이번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
- 또한,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의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- 오늘 참석자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